

## 기생전



천한 신분이었지만 당대의 패션 리더이자 시·서·화에 능했던 기생,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기생의 다양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회다. 난이 그려진 기생 치마폭 등 모두 500여점의 사진과 엽서 등이 선보인다.

전시 하이라이트는 역사자로 수집가 이돈수 씨가 소장한 기생 엽서와 사진이다. 일제시대에는 조선 총독부 등에서 식민지 홍보를 위해 사진엽서를 활발하게 제작했고 관광안내 책자나 조선풍속사진첩 등에 기생 사진이 자주 실리곤 했다고 한다.

작가 권오창의 기생 초상과 현대미술작가 윤석남, 배준성이 기생을 주제로 제작한 첨단 작품도 볼 수 있다. 또 기생의 저고리나 치마뿐 아니라 속옷까지 고증을 거쳐 재현했다. 전시장 한쪽에는 화조병풍·악기·보료·화장도구를 갖춘 기생방이 꾸며져 눈길을 모은다.